

정례브리핑

2021.11.26.(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오늘 주요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장관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제포럼은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내외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DMZ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 방안 및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특별한 외부일정 없이 부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모두에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3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인영 장관이 최근 내년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답변> 정부는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사항과는 별개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천륜의 문제이기도 한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으로 최우선적으로 진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등을 촉구해 왔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이 어렵다면 화상으로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상봉장 구축 등 제반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화상상봉장 7곳을 추가로 증설하여 총 20곳의 화상상봉 인프라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린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으로, 국내 정치 일정 등에 따라 속도나 완급을 조절하여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이산가족들의 분단 고통을 완화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9일은 북한의 로켓공업절입니다. 관련해서 북한의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변> 북한이 발행한 올해 2021년도 달력에는 11월 29일을 로켓공업절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로켓공업절은 북한이 발행한 올해 달력에 새롭게 표기되었지만 북한이 당회의체나 공식 보도매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개한 바는 없습니다.

11월 29일은 북한이 지난 2017년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정부 성명을 발표한 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념행사 준비 또는 북한의 보도매체에서의 보도 동향 등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만한 특이 동향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영변 핵 활동 징후 보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시설 징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정상회담 등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 주실 부분이 계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